

문진기금 지원대상자 선정 발표

203건 3억8800만원...무대공연지원 18건 2억3400만원

이광재 jajuy@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09-01-27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2009년도 광주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문화예술진흥기금 및 무대공연 작품제작지원 대상을 선정 발표했다.

27일 광주문진위에 따르면, 집중지원과 일반지원 및 신진작가지원 등 3개 분야에 걸쳐 모두 203건의 개인과 단체 신청사업에 대해 문진기금 지원금 모두 3억8800만원 규모의 지원대상을 최근 확정 발표했다

집중지원은 광주광역시문인협회의 '제 14회 시민과 함께하는 시화전'(500만원)을 비롯해 문학 음악 미술 연극 등 4개 분야의 단체들에 300만원에서 900만원씩 지원키로 결정했다.

신진작가지원은 박주연의 '국악 게릴라 콘서트'(100만원)등 모두 20건에 각각 100만원에서 2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일반지원으로는 문학 미술 음악 무용 국악 사진 연예 등 8개 분야에 163건이 확정됐다.

문진위는 이와 함께 공연예술분야의 창작의욕 고취 등을 위한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 공모 결과 연극 음악 무용 국악 다원 등 5개 분야 18건에 대해서도 모두 2억34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연극분야에서는 모두 15건의 신청사업 가운데 4건이 결정됐는데, 놀이패 신명의 '무지개 뜨는 교실'과 극단 토박이의 '죽기 살기', 극단 까치놀의 '대학로는 파업중', 극단 크리에이티브의 '민중의 적' 등이다.

음악분야는 14건의 신청가운데 4건이 지원 확정됐다. 광주오페라단의 '자니스키키&전화'와 강속자 오페라단의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빛소리오페라단의 '사랑의 묘약', 광주합창연합회의 '한국 가곡의 밤' 등이다. 무용에선 5건 가운데 2건이 지원대상이 됐다. 광주로알발레단의 '하얀그림자'와 뿌리한국무용단의 '한국인 첫 사제 김대건'이다.


국악은 모두 17건 신청 접수결과 5건이 채택됐다. 내벗소리민족예술단의 '애가2'와 광주가야금연주단의 '가야금으로 세계를 두드리다', 황토재의 '영원을 담아 통하다', 그리고 풍물세상 굿패마루의 '잼이의 노려와 하선영가야금병창단의 '노래빛깔'공연 등이다.

다원예술분야에는 11건의 신청이 접수됐는데, 이 가운데 시하나노래하나의 '에듀포엠콘서트'와 들꽃마을사람들의 '옛사랑의 설렘 콘서트', 하늘다래예술단의 'Dream21'등 3건이 지원결정됐다. 이들 무대작품제작지원 사업에 선정된 각 단체들에게는 각각 5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문진위 관계자는 "시중 은행의 금리 인하로 기금이자율이 떨어지면서 지원금액도 다소 줄어 안타깝다"며 "앞으로 지원사업들에 대해 다양한 워크숍이나 간담회 등을 가져 관련 예술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진기금과 무대공연지원 선정 발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광주문진위 홈페이지(www.kjacc.or.kr) 또는 전화 381-2234.

이광재 기자 jajuy@gjdream.com

인쇄하기 

닫기 